

## 「廢墟」「白潮」에 관한 研究史 批判

曹 南 鉉\*

### 1. 問題提起

기왕에 발표된 韓國文學史와 論은 대부분 廢墟와 白潮의 重要性을 認知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圖式化의 趨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圖式化의 거의 無批判의인 答復은 廢墟·白潮에 대한 否定判斷을 심화시키는 結果를 가져 왔다. 두 同人誌가 의욕은 많았지만 실제 성과는 별로 보여주지 못 하였다는 부정판단을 그대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不知不識間에 아래와 같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詩는 呻吟하거나 눈물을 짜야만(whining) 이루어 질 수 있다.」<sup>1)</sup>

특히 白潮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한국의 현대문학사에서 제일 먼저 實演해 보인 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廢墟나 白潮는 一回的인 고유명사의 성격의에 次後 한국문학사의 공간내에서 얼마든지 再生될 수 있는 보통명사로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상이 바로 廢墟·白潮에 관한 논의의 輪이 될지도 모른다.

원래 서양의 浪漫主義는 그 용어의 多義性<sup>2)</sup>, 發生過程의 多岐性<sup>3)</sup>, 再生

\* 博士課程 (國文學專攻), 建國大 專任講師

1) T.E. Hulme, *Romanticism and Classicism* (1924)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Vol. 2, 1962. pp. 1642~1645)

이 말은 남만주의 시의 성격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T.E. Hulme은 이러한 作詩法을 부정하여 「乾燥하고 딱딱한」詩의 부흥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白潮나 廢墟에 계재된 詩風은 부정하면서도 精각 그러한 詩風을 詩의 境界이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Convention)이 뿌리깊이 남아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 René Wellek, *The Concept of Romanticism* p. 151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1973*)

的인 성격<sup>4)</sup>, 오랜 기간에 걸친 발생 및 발달과정 등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또한 浪漫主義는 어느 문예사조보다 건전한 現實感覺이나 認識에서 출발한다.<sup>5)</sup>

廢墟나 白潮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서양의 경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다음의 터전 위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本稿는 廢墟와 白潮를 同一線上에서 처리하였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 근대문학의 낭만주의는 廢墟·白潮에서만 그 특질이 抽出되어질 것은 아니다. 泰西文藝新報에서 비롯하여 創造, 薔薇村, 金星, 廢墟以後, 朝鮮文壇 심지어 開闢까지도 廢墟·白潮의 延長線上에 놓여야 할 줄로 안다. 진정한 의미의 낭만주의 혹은 낭만주의의 정신은 위에서 말한 文藝誌를 概括한 후이나 導出이 가

If we insist on taking the contrast between the terms "classical and romantic" as decisive, we arrive at the dates 1801 for Germany, 1810 for France, 1811 for England, 1816 for Italy, etc. If we think that a realization of the quality of romanticism is particularly important, we would find the term "Romantik" in Germany in 1802, "romantisme" in France in 1816, "romanticismo" in Italy in 1818, and "romanticism" in England in 1823.

- 3) 가령 불란서에서는 뭇쏘와 스타달을, 독일에서는 쉴레겔과 괴테를, 영국에서는 위즈워드와 콜릿지를 각각 낭만주의의 元祖로 보고 있다. 각자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각자의 활동연대도 다르며 일생동안 추구해 들어간 문학의 장르도 모두 다르다.
- 4) F.L. Lucas,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tic Ideal*,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54, p. 140.

R. Wellek이 浪漫主義를 헬레니즘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 반면 F.L. Lucas는 浪漫主義의 원형을 디오니소스의인 樣式에서 찾고 있다.

「There is in fact a time to dream and a time to wake; a time to remember reality and a time to forget it, a time to be drunk and a time to be sober; a time to "think with the blood" and a time to think with the brain. But none of these to excess. The Greeks knew it; that is why there is so much that is Romantic in their so-called classics. Apollo did not burn the worshippers of Dionysus; he gave his young brother a share in his own Delphic Shrine.

- 5) Ibid p. 136.

The Romantic drinks; he is not yet a drunkard.

이어서 F.L. Lucas는 많은 사람들이 낭만주의 시를 곡해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낭만주의 시를 허위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낭만주의 시가 보여주는 고도의 상상력과 상징성에 익숙치 못한 나머지 자신들의 無知와 不誠實을 감추기 위해 감정적으로 낭만주의 시를 싫어하게 된다.

능하기 때문이다. 同人의 離合集散 過程에서 이미 白潮와 廢墟는 同本에서 출발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廢墟가 폐간(1921년 1월 20일)된 후의 廢墟同人과 白潮가 創刊되기(1922년 1월 9일) 이전의 白潮同人은 薔薇村(1921년 5월 24일에 단 한번 出刊)을 통해 合席하였던 것이다. 黃錫禹, 卞榮魯, 吳相淳으로 대변되는 廢墟派의 방법과 朴英熙, 盧子泳, 朴鍾和로 대표되는 白潮派의 방법이 원래 和合의 형태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薔薇村의 短命의 이유가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만 白潮와 廢墟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쉽게 究明될 수는 있다. 만일 薔薇村이 두 同人勢力의 이념이 엇갈려 短命하였다는 것이 확실하여지면 白潮와 廢墟는 대립의 관계로 묶여져야 할 것이다. 당시의 同人會는 물론 理念上의 同一型이라는 성격을 지향하기는 하였지만 대개는 별 뚜렷한 자각이나 의식이 없이 개인 사이의 親疎關係에 따라 적당히 묶여지는 그런 식이었다. 金億은 廢墟同人이었다가 1921년 1월(創造 8권) 이전에 金瓚永, 金彈實과 함께 創造로 移籍하였다. 黃錫禹는 廢墟脫退後 薔薇村으로 옮겨 주간이 되면서 옛 동인을 다 흡수하였다. 극히 사이가 나빴던 橫步만이 薔薇村에 가담하지 않았다.<sup>6)</sup> 橫步 특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彼此的 共鳴契合할 何等의 內的 要素가 缺乏하여」 이 당시의 동인은 거의 대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色彩가 아주 다른 곳으로도 쉽게 옮겨 다니는 浮動性마저 서슴치 않았다. 따라서 「어떤 文藝誌는 무슨 主義」 하는 식의 도식화는 이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6) 廉尙燮, 樺樹下에서(「廢墟」 제2권, pp. 56~57)

橫步는 이 수필에서 廢墟와 그 同人에 대한 世間的 소문을 반박하고 있다. 廢墟가 철저한 同人誌임을 역설하고 있으며 同人의 참여와 탈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론으로 설명을 대신하였다.

「元來 同人組織은 그 大體의 思想傾向이 類似한 者가 一種의 文藝運動을 일으킴으로써 出現의 理由가 있고 氣分의 統一, 意氣의 渾融投合으로써 存續의 可能性을 覓出하는 바이다. 하고보면 成時에 離合集聚가 잇슴은 彼此的 個性을 尊重하고 共同目的을 爲함에 不得已한바이 아닌가……우리는 우리의 事業의 性質上 精神의 共鳴과 氣分의 默合을 가장 重要視안을 수 업다. 따라서 彼此的 共鳴契合할 何等의 內的 要素가 缺乏하였을세 서로 分함이 腐絲보다도 弱한 境遇가 업지 못할 것이다.……」(p. 57)

白潮와 廢墟에 대한 論究의 방법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精神史的 接近法을 생각할 수 있다. 廢墟·白潮에 게재된 작품의 대부분이 치졸하고 미숙한 습작의 수준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수준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構造分析을 피함으로써 發想法의 원형을 復元시킬 수는 있지만 역시 所與存在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과거의 研究態度에서 필요이상으로 白潮派의 詩作品을 美化하고 深化한 오류는 얼마든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資料에 대한 기본적인 輕重評價過程에서마저 혼란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本稿는 그 이유중의 하나로 精神史的 接近法의 空白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한 構造分析이 쓸모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精神史와의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廢墟·白潮에 대한 論究가 바람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할 뿐이다.

## 2. 研究史의 批判的 概觀

廢墟·白潮에 대한 부정판단은 春園과 耀翰의 偏見에서 비롯되었다. 春園이 「朝鮮文士와 修養」(創造 8권, 1921. 1)이란 글을 발표하였을 때 廢墟는 제2호(終刊號)가 출간되었다. 물론 春園은 이 글에서 廢墟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薔薇村 결성 및 출간을 절점으로 한 廢墟의 분위기는 충분히 感知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글을 통하여 春園은 소위 「데카단쓰」의 풍조가 형성된 요인으로 대개 ① 人格·學識의 缺如<sup>7)</sup>, ② 日本으로부터의 傳播, ③ 청년의 유행충동심리<sup>8)</sup>를 지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春園은

7) 李光洙, 朝鮮文士와 修養, 「創造」8권, 1921. 1, p. 14.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文士들은 엇더흐닛가 모다 二十歲 乃至 三十歲內 外의 青年 少年으로 中等程度 學校의 卒業生程度의 學識받게 업는데다가 淺薄腐敗한 日本의 頽廢期의 文學에 盲間 感染 되었을 뿐 모든 일의 基礎되는 人格의 修養과 學識의 修養은 거의 蔑如하며 益々야 自國의 歷史와 各 民族의 國民性에 對하여 아모 知도 識도 업스니 그中에서 健全호 文學 偉大호 文學이 나오기를 엇더케 바라겠습닛가. (傍點은 筆者任意)

8) Ibid p. 15.

人格·學識의 缺如라는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自己流의 「健全한 文學」 「인생을 위한 예술」의 방법론에 廢墟를 求心點으로 한 당대 젊은 文人들의 분위기가 완강한 反對命題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는 知的 優越感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人=文」이라는 도식적 사고법을 제시하였다. 즉 위대한 인물에게서는 위대한 문학이 나오며 頹廢的 人物에게서는 頹廢文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극단론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듯 물질과 영혼, 의모와 내면을 너무 쉽게 일치시켜 생각하는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의 靚覺은 일찌기 春園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내세운 否定的인 文士의 조건은 지나치게 의모에만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

「學校를 卒業하지 말것」 「무른 술, 붉은 술에 耽溺할 것」 「반다시 戀愛를 談話할 것」 「頭髮과 衣冠을 야릇이 할 것」 「神經衰弱性 貧血症 容貌」 「不規則 不合理한 生活을 할 것」 등등의 조건은 엄밀히 말해서 문학의 영혼 혹은 작품의 내용과는 별 상관없이 있는 것이다. 春園은 이렇듯 불안정한 의모가 곧 「영혼의 平衡이 깨어진 것」(ein Mangel an seelischen Gleichgewicht)<sup>9)</sup>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앞에서 나온 春園의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면 당시의 젊은 文人들은 최소한도 현실에 대해서 正面으로 對應하지 않았거나 못 하였다는 추측이 나올 법하다. 현실에 대한 迂回的인 對應方法이 文人들 사이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春園이 지적한 몇 가지 현상은 최소한도 현실을 回避하려거나 현실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 病的 徵候

아아 아직 發芽期에 있는 우리 文壇에는 「네카단쓰」의 亡國情調가 風靡한 야 마치 鴉片모양으로 毒酒모양으로 青年文士 自身과 및 純潔한 그네의 讀者인 青年男女의 精神을 迷惑합니다. 이것은 眞實로 不健全한 日本文壇의 傳染을 맞은 結果의다. (傍點은 筆者任意)

- 9) Arnold Hauser,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Verlag C.H. Beck München 1969 p. 684.

A. 하우저는 「영혼의 平衡狀態가 깨어진 것」을 病的 浪漫主義의 한 特色으로 보고 있다.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보면 낭만주의는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 낭만주의는 現在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갖게 되어(Furcht vor der Gegenwart) 未來속으로 도피하거나(Flucht in die Zukunft) 過去 혹은 유토피아 속으로 도망가 버린다. ……」

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春園은 「데카단쓰의」이라는 말을 「無意識的」 「最少抵抗主義的」 태도로 풀이하고 있다. 이 경우의 「無意識的」이라는 말은 春園流의 민족주의나 계몽사상에 대한 각성이나 관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最少抵抗主義的」이라는 말은 본문에서 별도로 보충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저항의 대상이 日帝였는지 아니면 인생 또는 사회의 영원반부적인 不條理였는지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 다만 春園이 이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는 점을 미루어 다른 각도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 또한 春園의 過敏反應을 미루어 廢墟의 성격을 反對浮彫할 수밖에 없다.

廢墟(白潮)는 春園(六堂)이 선두가 되어 이루어 온 문학의 분위기 혹은 방법론을 암암리에 부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文學의 ① 硬直化 ② 政治化 ③ 世俗化를 거부하고 있다. 文學이 계몽의 도구로 쓰이고, 정치적 관심을 반영하고, 대중들에게 읽혀지고 愛誦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 하였다고 자임하는 태도는 文學이 주어진 현실에만 급급하여 現世中心의 發想法만 고집하는 데서 나온다. 廢墟·白潮는 이렇듯 「現在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관심을 갖는」 春園流의 素朴性에 회의를 보인 것이다. 春園은 소위 「새로운 흐름」을 精神史의 정통적인 한 場으로 보아 주지를 앓고 오히려 한 때의 實驗精神으로 度外視하였던 것이다. 소위 「데카단쓰」는 가까운 장래에 소멸되어 버릴 異端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10)</sup> 春園의 이러한 몇 가지 獨斷論은 훗날 많은 論客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같은 낭만주의를 보면서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견해가 나올 수 있다. 결국은 「누가 보고 말하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보고 말하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줄로 안다.

「낭만주의는 혁명의 적으로부터는 무정부주의자로 낙인을 찍히었고 혁명

10) 李光洙, 文學講話(3), 「朝鮮文壇」3호, 1924. 12. 1, p. 51.

陶淵明, 李太白, 杜子美의 詩, 에스퍼어, 밀튼의 詩는 近來의 尼른 바 官能主義, 耽美主義, 데카단主義의 汗牛充棟할 燦爛한 詩作品이 모도 忘却의 深淵에 들어간 뒤까지 永遠에 光彩를 發할 것은 이것으로 보아 가장 확실한 일이다.

예찬자로부터는 힘과 에너기로 칭송받았다.]」<sup>11)</sup> 廢墟나 白潮를 대하는 春園의 입장은 後者보다는 역시 前者쪽에 가까운 것이었다. 春園과 마찬가지로 정통을 자처하며 廢墟·白潮를 斜眼視한 인물로 朱耀翰을 들 수 있다. 朱耀翰은 「조선덕 사상 정서의 표현과 조선덕 언어의 미를 발견」<sup>12)</sup>하는 것이 新詩 운동의 목표라 하여 韓國詩의 성패요인을 民謠에서 찾은 바 있다. 그는 露雀, 岸曙, 素月 등을 例擧하며 「이들의 장래를 큰 흥미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서 특히 白潮派의 詩方法을 「외국어의 直譯」이라고 몰아 버렸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민요에 기초한 詩의 방법과 대립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 바로 白潮派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나는 근래 우리 청년 작가들 중에 외국서 들어온 악마주의, 유미주의, 데카단주의를 창도하는 사람의 큰 발달을 의문으로 압니다.……」<sup>13)</sup> 春園보다는 耀翰이 훨씬 감정에 치우친 거부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耀翰은 자신의 詩方法(民謠應用說)을 고집한 나머지 세밀한 분석도 없이 논리의 비약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선 春園이 耀翰보다는 분석적인 태도를 잘 견지하여 공감의 폭이 넓은 셈이다.

自己合理化 혹은 先制防禦의 한 방편으로 春園과 耀翰이 廢墟·白潮를 白眼視한 반면 廢墟나 白潮에 직접 가담하여 중심 멤버의 역할을 하였던 朴英熙, 金基鎭, 朴鍾和는 지나칠 정도의 自己反省을 피하고 있다. 특히 朴英熙와 金基鎭의 轉身(傾向文學에 가담)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白潮를 부정판단하는 단서를 마련하여 주기도 한다. 白潮同人의 회고담 혹은 自己反省文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朴英熙의 경우다. 朴英熙의 견해중 주목할 만한 것은 白潮의 短命에 대한 원인분석과 데카당스의 名分에 관한 해설부분이다. 그는 白潮同人(誌)이 오래 가지 못한 것을 「경제적인 一面에서 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때문이라고 한다. 즉

11) Carl Schmitt, *Politische Romantik* (1919) (襄成東譯, 三省出版社, 1977, p. 377)

12) 朱耀翰,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 「朝鮮文壇」 제3호, p. 45.

「情熱의 同一型이 비로소 理智的 成長에 따라 分解作用을 일으키는 것」<sup>14)</sup>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는 白潮의 文學史的 意義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백조는 메카다니즘의 최고봉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자기반성과 아울러 다음 계단에서 자기세계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백조는 아름다운 꿈과 거치른 현실과를 연결하는 橋梁的 임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 하였지만 그런데로 朴英熙는 낭만주의의 二元性을 잘 지적하고 있다. 낭만주의가 二元性의 구조를 지녔다는 말은 낭만주의가 건실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였다는 명제를 실감케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朴英熙는 근 십여년을 프로文學의 진영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反映論(Widerspiegelungstheorie)에 입각한 論旨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구체적인 표현방법이나 관심구조가 각각 다른 白潮同人들의 공동분모를 究明하는 작업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 朴英熙는 조심스럽게 공동분모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는 白潮同人의 활동의 동기를 「自己慰安」에서 찾고 있다.

「이때의 詩文學은 대부분이 이 퇴폐사상에 기울어졌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민을 예술적 향락에서 消散하여 버리자는 것이었다. 현실적 또는 인간적인 고통을 美의 幻影 속에서 자위하려는 것이었다.」<sup>15)</sup>

원래 낭만주의자는 「현재의 찬미자」(laudator temporis acti)가 아니면 「과거의 예언자」(prophète du passé)<sup>16)</sup>의 형태를 지닌다. 朴英熙의 회고를 좀 더 확대하여 해석하자면 白潮는 개화기 이후 줄곧 우세를 보여 왔던 「公論詩」(唱歌·開化歌辭) 및 「思想詩」(朝鮮主義의 직접 제시)의 양식을 극복한

14) 朴英熙, 現代韓國文學史(4회), 「思想界」 63호, 1958. 10. p. 45.

15) Ibid p. 53.

16) Carl Schmitt, Op. cit p. 371.

이 전제는 사실 文學上의 낭만주의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政治的 낭만주의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형태로 나타난다. 표면적이거나 개인적인 동기와 개인적인 모색을 처음으로 본격적인 시의 양식에 담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朴英熙는 羅稻香, 黃錫禹, 金億, 李相和, 朴鍾和, 吳相淳, 南宮璧, 洪思容, 盧春城 등의 시의 특질을 간략하게나마 印象批評의 입장에서 요약하고 있다. 의식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白潮同人과 廢墟同人을 한 팔호속에 잡아 넣고 있다. 그런데 그가 시도한 白潮의 構成要因에 대한 분석은 별 타당성을 주지 못한다.

「白潮는 와일드의 華奢, 베르케스의 頹廢, 포우의 奇怪, 보드레르의 放縱 등의 종합적 기질의 별형」<sup>17)</sup>

물론 이상의 설명은 白潮를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바라 보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시 白潮의 낭만주의는 文藝思潮의 측면만이 아닌 정치, 사회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해야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白潮의 낭만주의보다는 「낭만주의화(Romantisierung)」<sup>18)</sup>에 관심을 기울이었던 것 같다.

白潮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거의 보여준 적이 없는 金基鎮은 朴英熙와는 달리 白潮의 深層性을 간과하고 있다. 그는 白潮派와 廢墟派를 對極의 관계로 보고 전자를 「명랑한 감미로운 人生面을 찾는 향락주의적인 낭만」으로 후자를 「침통, 우울, 고민, 자조, 모색, 오뇌」로 규정하고 있다. 朴英熙가 白潮의 廢刊을 「지성의 성장에 따른 情熱的 同一型의 分解」로 분석한데 반해 金基鎮은 그 자신의 가담으로 인한 소위 新傾向文學의 도입이 白潮의 흐름을 막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金基鎮의 自己陶醉에 찬 설명은 별 설득력이 없다. 이미 白潮 제3호(終刊號)에서는 金基鎮의 이론에 대한 反駁이 제시되어 있는 터이다. 本誌 제3호의 卷末 편집후기에는 傾向文學에 대한 痛烈한 反駁이 나타나고 있다. 朴英熙는 당시 開關에 게재된 任鼎宰의 「文士諸君에게」란 글을 조목 조목 꼬집어 비난을 보내고 있다. 논리의 확대를

17) 朴英熙, 白潮 華麗한 時節, 「朝鮮日報」 1933 9.

18) Carl Schmitt: op. cit p. 381.

참고: 언제나 새로운 사회는 아직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지 못하고 낭만주의와 더불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이 예술을 논의하고 또는 이질적인 형식을 받아들여 浪漫主義化 하는에 그치고 있다.

피하여 朴英熙는 당시 문학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朴英熙는 프로文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 그러한 문학의 방법론을 등에 업고 날뛰는 소위 主義者들을 비판하고 있다.

「게으른 사람의 부르짖는 것이 文學이 아니고 일업은 青年의 娛樂場이 文學이 아니고 말치레하는 青年의 「레크레순」이 藝術이 아니다. 安逸한 者의 입버릇이 「푸르레타리아」가 아니고 實際업는 虛無主義者의 宣傳이 打破가 아니다. 몸을 健康하게 하여라. 그리고 思想에 病들지 안도록 研究와 讀書를 充分히 하여라.」<sup>19)</sup>

이외에도 朴英熙는 梁柱東의 英雄天才論을 비판하면서 梁柱東의 만만한 패기는 「로맨·로란의 헤로이슴, 싸르부우스의 크라르테운동을 다 무색케 한다.」<sup>20)</sup>고 하였다. 로맨·로란, 바류브스 등의 이름이 드문드문 오르 내리는 것을 보아 이미 白潮同人들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傾向文學의 유행을 의식은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金基鎭이 白潮에 가담, 新傾向文學을 月灘, 懷月 등에 소개 하자마자 白潮가 해체되었다는 金基鎭 자신의 述懐는 별 의미를 주지 못한다.

韓國文學史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관한 고정관념도 문제 되겠지만 특히 廢墟·白潮에 대한 뿌리 깊은 固定觀念을 제공한 책임자로 우리는 白鐵을 特記할 수 있다. 白鐵은 朴英熙나 金基鎭보다 근 10년이나 앞서서 개화기 이후의 한국문학에 대한 史的 記述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白鐵은 「朝鮮新文學思潮史 上卷」(1947. 白楊堂)에서 근 50페이지에 가까운 지면을 廢墟에 할애하였으며 역시 비슷한 분량을 白潮에도 제공하고 있다. 白鐵은 廢墟와 白潮를 엄격하게 구분지으면서 이러한 一連의 사조가 3·1운동의 좌절끝에 자연 발생하였다는 데 역점을 준다. 己未運動이 실패로 돌아가고 경제적으로도 몰락하면서 일반 지식인과 예술가 문인들은 「비관·회의·무기력의 現實觀을 지니게 되었다.」 여기에 매마침 불란서의 데카당스와 러시아의 우울문학이 제일의 選好度를 보여주며 수입된 끝에 廢墟·白潮의 분위기가 형성되었

19) 朴英熙, 六號雜記, 「白潮」 제3호, p. 211.

20) Ibid p. 209.

다. 白鐵은 頽廢文學(廢墟의 同義語로 쓰임)의 특질을 「현실을 咀呪하면서 亦是 現實에 愛着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딱한 實情을 呼訴한 것」<sup>21)</sup>으로 보고 있다. 朴英熙의 논지를 인용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白鐵은 이러한 모순의 구조를 「中間的인 倫理」라고 못 박는다. 즉 「어떤 영원한 목적을 전제한 새로운 생명과 진리를 위한 고민」<sup>22)</sup>이 구체화한 것이 廢墟와 白潮라는 것이다. 康尙燮의 「牽牛花」 서문, 金億의 「懊惱의 舞蹈」의 서문, 吳相淳의 「時代苦와 그 犧牲」이란 논설에서 이러한 생각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지적하면서 白鐵은 이것이 퇴폐주의의 本領이라고 주장하였다.

本稿는 白鐵의 「中間的인 倫理」를 「方法論的 頽廢」 「方法論的 浪漫」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싶다. 妥當度 與否의 판정은 그만 두고라도 지금까지의 研究에서는 이에 대한 극복이나 심화가 엿보이지를 않는 것이 사실이다.

白鐵은 白潮와 廢墟의 다른 점으로 꿈의 有無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中間的인 倫理」란 말로 廢墟의 입장을 美化시키려고 하였던 그의 의도가 모순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판단만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결코 될 수 없을 만큼 廢墟·白潮의 의도는 복잡한 것이다. 그는 白潮派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하였다.

- ① 病的·頽廢的
- ② 主觀的(주관적 境界의 주입과 觀念의 放射)
- ③ 感傷(靈雀과 稻香)
- ④ 神秘와 象徵, 唯美主義(시의 주제: 꿈, 주검, 未知)<sup>23)</sup>

白鐵은 白潮派의 특색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품의 구조분석을 피하였다. 특히 그는 洪思容, 朴鍾和, 李相和, 朴英熙, 羅稻香의 詩作品을 집중적으로 분석 하였는데 印象批評에서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量的 分析(빈도수가 높은 詩語로 詩의 특질을 잡음)의 소박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幽靈의 나라」와 「末世의 歡嘆」을 분석하면서 懷月과 尙火 두사

21)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上卷, 白楊堂, 1947. p. 212.

22) Ibid p. 214.

23) Ibid pp. 275~316.

람이 낭만파중 퇴폐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추측을 내리고 있다. 또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보고 「衆生の 세계를 내려다 보는 독존적인 경지」로 풀이하기도 한다. 白鐵이 파악한 특색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①번의 「病的」이란 것이다. 「病的」이란 개념은 괴테의 「病的 原理」(Prinzip der Krankheit)<sup>24)</sup>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괴테는 이 말을 古典主義와 확연히 구분지어 질 수 있는 浪漫主義의 본질을 한 마더로 압축시키기 위하여 쓴 것 (Klassisch ist das Gesunde, romantisch das Kranke)인데 이 말은 후에 心理學의 照明을 받아 심화되어 왔다. 이렇듯 심화되어 사용된 예를 들자면: Morse Peckham은 「낭만주의의 이론에 대한 고찰」(Toward a Theory of Romanticism)(1951)이란 글에서 「消極的 浪漫主義」(negative romanticism)란 개념을 案出하였는데<sup>25)</sup> 이 개념은 「질망에 빠진 허무주의적」인 낭만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병적인 낭만주의 혹은 소극적인 낭만주의는 우리가 흔히 들어 온 世紀末, 世紀病, 世界苦, 메카당스의 개념과 근접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의 同人들이 이렇듯 복잡한 「病的」 태도 혹은 현실접근방법을 충분히 자각하였느냐에 있다. 아주 斷片的인 자료에 불과하지만 白潮의 편집 책임자이었던 洪思容의 기록에서 自覺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매양 누가 病이라고 일컫를새에 不幸하다 하면서도 매우 幸福스러워 보이더라. 더구나 「病詩人……」 그것은 참으로 쓸만한 느낌이 잇스면서도 알쓸히 달콤한 맛이 잇서 보이더라. 그러나 幸福스럽게 보이든 그것도 憧憬하든 그새가 조홀뿐이지 정말로 病이 온다 하면 온 天下에 실힌 것은 그것이다.」<sup>26)</sup> 洪思容은 자신이 병들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병든 상태를 가정하여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해 보고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을 헤어 보기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不幸한 민족일수록 보다 더 낭만적이고 애상적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이미 자신의 시속에서 實證하고 있다.

어찌하면 「病詩人」 또는 「病的 浪漫主義」란 말 자체가 同語反復인지도 모

24) Arnold Hauser, op. cit. p. 685.

25) René Wellek, Romanticism Re-examined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rsity, 1973. p. 201)

26) 洪思容, 六號雜記, 「白潮」 제3호, p. 212.

른다. 또한 浪漫主義 역시 심각한 「葛藤의 樣式」<sup>27)</sup>이라는 점을 수증하고 들어 간다면 「病的」이라는 개념이 꼭 부정될 수만은 없다고 본다. 白潮同人들이 日帝를 절실하게 의식한 끝에 간접적이면서 장기적인 對應方法의 한 방법으로 작품을 썼다면 「病的」이란 낱말은 植民史觀에 오염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本稿의 能力上 하나의 推測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病的」이란 말은 낭만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낭만주의만큼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아주 복잡하게 지니고 있는 문학사조도 없다. 이제 참고삼아 낭만주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 보자. 이는 廢墟·白潮의 精神史的 의미를 파악하는데 때 놓을 수 없는 단서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것)

- ① 생동함
- ② 유기적
- ③ 純情的 또는 風情함
- ④ 持續的
- ⑤ 保存的
- ⑥ 역사적
- ⑦ 確固함
- ⑧ 평화적
- ⑨ 正統的
- ⑩ 기독교적
- ⑪ 신분제·동업조합적

27) Arnold Hauser, op. cit p. 700.

낭만주의는 충동과 이성, 과거와 현재, 자아와 세계사이의 갈등에서 시작한다. 生과 精神, 自然과 文化, 歷史와 永遠, 孤獨과 사회적 連帶感, 進歩와 傳統 이러한 것들은 論理的 相關이나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可能性으로서 인간이 끊임없이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 가능성 추구의 구체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다.

本書 p. 694 참고

- (가) 유토피아와 童話의인 世界에로의 도피
- (나) 無意識과 상상적인 것, 신비로운 것에로의 도피
- (다) 어린시절의 추억과 자연에로의 도피
- (라) 꿈과 狂氣 추구

(부정적인 것)

- ㉠ 力學的·기계적·수학적인 硬直
- ㉡ 무기적
- ㉢ 代用品(위장, 속임수)
- ㉣ 순간적
- ㉤ 파괴적
- ㉥ 恣意的
- ㉦ 渾沌
- ㉧ 당파적, 논쟁적
- ㉨ 혁명적
- ㉩ 異教的
- ㉪ 절대주의적·중앙집권적<sup>28)</sup>

물론 위의 도표는 西歐의 그것도 문화적 현상단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현상을 종합 검토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 도표에 廢墟·白潮의 특질을 照回하여 본다면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짐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廢墟·白潮의 경우에 전혀 暗示를 주지 못하는 항목도 없지는 않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廢墟·白潮를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가는 底邊에는 해방후에 마저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 하였던 植民史觀, 官憲(日帝의 注文에 의한) 史觀이 깔려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하라는 말은 아니다. 어찌서 三·一운동 직후에 일련의 文學同人이 결성되었다가 解消되었는가?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르지만 예술에의 전념, 문학에의 신앙을 표방한 그들의 인센티브를 단순히 패배주의, 개인주의의 몫부림이라고만 볼 수 있을 것인가?

趙演鉉은 당시의 시인들(1920년대 초반)을 낭만주의로 일단 묶어 다시 그 특징별로 유형화를 시도 하였다. 朱耀翰, 金億, 金素月을 抒情的 경향으로 묶었는가 하면 그와 대극에 서는 觀念的 경향에 吳相淳, 韓龍雲, 南宮璧을 들고 있다. 또한 白潮의 경영자이었던 洪思容을 感傷的 경향에, 李相和를 抵抗的 경향에 그리고 黃錫禹를 頹廢的 경향에 넣고 있다.<sup>29)</sup> 1920년대 초반에

28) Carl Schmitt, op. cit pp. 475~476.

29)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概觀」, 正音社, 1964. p. 126.

발표된 詩의 상황을 浪漫主義로 一括한 점도 문제이러니와 그를 공분모로 하여 각 특징을 파악한 데도 설득력이 없다. 趙演鉉 식으로 한다면 日帝때의 한국시는 전부 낭만주의의 작품으로 재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정, 관념, 감상, 저항, 퇴폐의 개념은 同位概念이 될 수 없다. 이 역시 논리적 근거나 타당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은 分類趣味에서 나온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春園流의 부정판단이나 白鐵流의 인상비평은 1960년대 후반까지 廢墟·白潮에 대한 通說로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사이에 발표된 중견 학자들의 일련의 논문은 分析의 객관도와 思考성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극복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金容稷 金淳東, 申東旭, 金允植 등의 論文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金容稷은 白潮에 대한 書誌的 檢討를 토대로 하여<sup>30)</sup> 白潮를 創造, 廢墟, 薔薇村의 連結線上에 올려 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31)</sup> 한국의 현대사에서 일단 白潮를 정점으로 하여 전개되는 낭만주의의 특질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다른 문예지에서 가능한 抽出하여 종합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충분히 타당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申東旭은 「白潮派와 浪漫主義」라는 논문에서 소위 「아래로부터의 방법」을 펴하고 있다. 기왕의 논문에서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申東旭은 시의 내재적 분석에 치중하여 있을 수 있는 고정관념을 되도록 분식하려는 흔적을 보여 준다. 그는 月灘, 懷月, 露雀의 시와 稻香의 「젊은이의 시절」 懷月의 「生」이라는 소설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전자들 <密室>의 意味로 후자를 <晦鬱의 自我>로 풀고 있다. 月灘의 白潮에서의 활동을 申東旭은 현실인식과 지적인 섭렵으로 잡는다.

「月灘은 己未年이라는 엄청난 民族的 大抗爭을 그리고 그 거창한 좌절을 겹쳐서 체험하고 난 시기에 詩作 했음을 또한 감안할 때 民族的 念願에 지극히 도달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거리를 의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

30) 金容稷, 白潮考察, 「檀國大 國文學論集」 제2집, 1968.

31) 金容稷, 現代韓國의 浪漫主義에 관한 研究, 「서울大 論文集」 제14집, 1968.

다.]<sup>32)</sup> 申東旭은 특히 尙火에 注目하고 있다. 尙火의 시에 나타난 〈洞窟〉의 이미지를 죽음과 생성의 원형적 의미로 풀고 있다.

「현실을 적극적으로 自己化하여 男性的으로 대처하는 詩精神의 결여는 그들의 업적 못지 않게 중요 문제이다.»<sup>33)</sup> 말하자면 尙火는 白潮의 여성적 소극성을 극복한 대표적인 시인이라는 것이다. 「白潮誌의 文學의 特色은 우선 華麗한 修辭, 曖昧한 暗喩, 암울한 性格의 제시, 그리고 외국의 지식 또는 문학의 섭취 등으로 드러나 있다. ……〈나〉를 부당한 밖의 세계와 적극적으로 대립시키고 힘차게 살아가는 人物이나 詩想은 없으나, 밖의 세계로부터의 압력에 위축된 인물과 어두운 시상이 절개를 존중하는 의식과 결합된 낭만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白潮」의 일반성에서 특수하게 李相和는 〈密室〉에서 벗어나 남성적이고 거센 낭만주의에로 나섰다. 이러한 문맥에서 선비적 절개를 존중하는 男性的 發想은 白潮의 후에 성숙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sup>34)</sup>

申東旭이 처음 쓴 「男性的인 낭만주의」라든가 「절개를 존중하는 의식과 결합된 낭만주의」라는 개념은 모호한 인상을 준다. 앞에서 논하였던 趙演鉉의 이른바 「抵抗的 浪漫主義」와 상통하는바 없지 않으나 결론으로서는 不明確한 듯싶다. 어찌 보면 내용은 옛날이나 다름 없는데 표현만 새롭게 바꾼 듯한 감도 준다. 申東旭은 白潮에 실린 작품중 중요한 것을 뽑아 작품의 특질을 규명하는 데서 白潮의 전반적인 성격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분명 바람직하긴 하지만 申東旭이 처음 한 것은 아니다. 부분적이거나 과거에도 이런 방법론의 시도는 있었다. 申東旭의 경우 분석과정에 비해 결론이 평범하게 맺어지고 말았다.

金澤東의 「韓國 浪漫主義의 成立」은 그의 말대로 「낭만주의 문학의 성립 이전에 있었던 외래문학적 영향관계의 한 측면을 단편적으로 고찰한 試

32) 申東旭, 白潮派와 浪漫主義, 「月刊文學」1974. 10.

여기서는 「文藝思潮」(金容稷, 金洙洙, 金鍾哲 編, 文學과 知性社, 1977)란 책속에 게재된 것을 참고로 한다. p. 386.

33) Ibid p. 389.

34) Ibid p. 394.



論」<sup>35)</sup>에 불과하다. 이 논문은 네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절에서는 서양의 낭만주의론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제 2절에서는 한국문학에 직접 접맥 가능성이 있는 日本의 낭만주의론을 논하고 있다. 이 부분이 金澤東 특유의 실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절에서는 이들과 연결지어 한국문학이 초기에 이론으로 접한 낭만주의론을 소개하고 있다. 제 4절에서는 기왕의 論究 중에서 白鐵, 趙演鉉, 金容稷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인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이미 白鐵의 文學史나 朴鍾和 같은 이의 회고에서 밝혀진 외국문학의 영향을 좀 더 본격적인 수준에서 논하려고 했으나 역시 필자 자신의 解明에서 나타난 것처럼 試論에 머물고 말았다.

金允植은 「韓國近代詩史攷」란 글에서 「薔薇村」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한국시의 樣相을 논하고 있다. 그는 「한국 근대시사 내지 문학사는 전통지향성과 모더니티 지향성의 변증법적 개념을 지향한다」<sup>36)</sup>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는 泰西文藝新報, 創造, 廢墟, 薔薇村, 白潮를 모더니티 지향성의 系列에 잡아 넣었다. 이어 白潮는 국내적인 폐허파와 일본적인 창조파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한다<sup>37)</sup>는 새로운 견해를 밝히고 있다. 「日本詩壇의 2대 傾向」(廢墟)과 「日本近代詩抄」(創造)로 구체적인 대립을 보여주는 黃錫禹와 朱繼翰의 관계를 핵으로 삼고 있다. 물론 어느 면에서 朱繼翰의 시와 黃錫禹의 시는 抒情 대 觀念, 민요풍과 西歐風 등의 차원에서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白潮가 創造와 廢墟를 止揚한 진퇴제라는 데는 異議가 없을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이와같은 변증법적 전개과정이 나타났는지 논문의 본문에서는 뚜렷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 과연 白潮가 創造와 廢墟를 止揚하였다면 무엇을 통해서 진퇴제의 발판을 마련했는가? 論題가 詩史의 전개과정이므로 詩의 水準이 제고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끝에 위와같은 논지가 나왔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本稿의 精讀에 의하면 廢墟에는 黃錫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다운 詩作品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35) 金澤東, 韓國浪漫主義의 成立, 「西江」1호, 西江大, 1970.

註 32)와 동일한 출전. p. 383.

36) 金允植, 「韓國現代詩論批判」, 一志社, 1975. 8. p. 189.

37) Ibid p. 205.

된다. 그러나 創造에 발표된 詩作品은 전반적으로 白潮만큼 창작동기의 치열성은 없으나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白潮에 뒤지지는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廢墟와 白潮를 浪漫主義라는 同一線上에다 놓고 보는 本稿의 입장에서 보면 金允植의 견해 역시 타당성을 획득하기 힘들 것 같다. 또한 모더니티 指向의 계열에 1920년대 초반의 同人誌를 一括 귀속시킨 방법에도 많은 회의가 뒤따를 수 있다. 결국 각 同人誌에 활자화된 「외국문학의 체험」을 확대경으로 보았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다. 廢墟·白潮의 경우 외국문학의 체험과정을 밝혀 놓음으로 해서 그 성격구명이 가능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同人들의 창작심리, 文藝社會學的 素因, 낭만주의적 발상법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이는 이들에 대한 맹목적인 부정판단은 극복되기 힘들 것이다. 金允植은 「1920년대 시장르 선택의 조건」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또다른 논문에서 白潮의 성립과정을 파헤치고 있다. 그는 月灘의 「黑房悲曲」, 懷月の 「月光으로 잔 病室」, 尙火의 「나의 침실로」이 세편을 「唯美主義的」이라는 常數로 풀고 있다. 그는 白潮를 詩 專門誌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 ㉠ 빙허를 빼고는 白潮同人이 전부 시인이다.
- ㉡ 장르선택이 사회적 문화적 여건으로 未熟하다.
- ㉢ 동인들의 연령이 낮다.<sup>38)</sup>

그러나 시전문지라고 하여 白潮의 성격을 詩가 전부 설명하여 줄 수는 없다. 오히려 詩 이외의 소설, 수필, 번역문, 희곡 등의 다양한 장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만 白潮 나아가서는 한국 낭만주의의 성격에 대한 考究가 가능할 것이다. 廢墟에 비한다면 白潮는 小說·戯曲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 제시된 ㉢의 이유는 논리적 연결이 부족한 느낌을 준다. 白潮派보다는 廢墟派同人의 평균연령이 조금 높았으나<sup>39)</sup> 활동시기(폐허가 백조보다는 2년이 앞선다)를 고려한다면 거의 비슷한 나이에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정열은 다를 바 없었다. 나이가 어리다고

38) Ibid pp. 210~212.

39) 鄭琦鎰, 三·一運動과 近代文學, 仁荷大人文學研究所「論文集」제1집, 1975.

하여 詩에 치중 하였다는 생각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廢墟가 論說과 외국문학의 소개를 위주로 한 반면 白潮는 단연 창작(三大장르 망라)을 앞세웠다. 또한 廢墟가 아직도 사회적 관심을 많이 보여준 반면 白潮는 개인의 내면속으로 自閉해 들어가 버렸다.

### 3. 結 論

本稿는 廢墟·白潮 나아가서는 한국 浪漫主義의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所産에 불과하다. 廢墟·白潮에 나타난 한국 낭만주의의 特殊性과 深刻性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두 동인지에 나타난 작품을 철저히 精讀하고 通讀한 끝에 銳角의인 解釋을 내릴 것이 요구된다. 本稿는 이러한 본격적인 작업을 제대로 이루어 내기 위한 先決課題로 廢墟와 白潮에 대한 研究史를 批判的인 眼目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韓國 現代詩史 나아가서는 韓國 現代文學史에서 가장 중요한 場이 되어야 할 廢墟·白潮가 어느 정도까지 인식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해부되고 있는가를 알아 보려고 한 것이었다. 研究史에 대한 批判的 考察이 없이는 오해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廢墟나 白潮에 대한 論究는 많은 사람의 단편적 혹은 개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本稿는 그 중에서도 李光洙, 朱耀翰, 朴英熙, 金基鎭, 白鐵, 趙演鉉, 金澤東, 申東旭, 金容稷, 金允植의 견해를 선택하여 살펴 보았다. 다시 이는 네가지의 部類로 압축된다. 물론 특징보다는 시대나 입장에 따라 묶은 경향이 짙다.

李光洙와 朱耀翰은 廢墟·白潮에 대한 否定判斷을 제일 먼저 시도한 論客들이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방향제시 대신 正統을 자처한 李光洙의 自己防護의 욕구가 더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2, pp. 87~88.

廢墟의 주요 동인중 吳相淳, 南宮壁이 1894년 생이고 卞榮魯가 1898년 생으로 제일 젊은 편이었다. 白潮의 주요멤버는 1900년에서 1902년 사이에 출생하였다.

방법에 대한 感知와 포용의 능력이 아울러 결여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鍾翰은 한국 新詩의 성패 여부는 民謠의 活用 如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廢墟・白潮의 방법이 이에 背馳되는 것이라고 단정, 배척의 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李光洙는 廢墟・白潮의 새로운 방법이 당시의 문단을 오랫동안 이끌어 왔던 實用主義的 文學觀에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였으리라. 李光洙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廢墟・白潮의 분위기는 精神史的 的의를 충분히 지닐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朴英熙는 白潮에 실제 가담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주었던 인물이다. 해방이전에도 여러차례 白潮에 대한 회고를 말하거나 써 왔었다. 해방이후 그는 문학사의 형태로 廢墟・白潮를 논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당시 同人會의 결성 및 解消過程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詩作品을 분석해 보이기도 하였다. 朴英熙의 論及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白潮派 詩人들의 창작심리 및 현실인식을 밝혀 놓은 부분이다. 그는 시행착오를 어느정도 自認은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자부심에 차 있는 回顧를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金基鎮은 白潮와 廢墟의 방법을 완전히 대립관계로 묶어 놓고 있어 논리의 無根據 혹은 逸脫을 보여 준다. 論旨의 구성방법은 朴英熙와 비슷하나 感情이 많이 介在되어 있다.

廢墟・白潮에 관해서 白鐵만큼 解釋과 實證主義의 방법을 잘 구사하여 설명한 사람도 없다. 그는 白潮와 廢墟를 완전히 분리해서 오히려 對立된 위치에 세워 놓고 설명하고 있다. 西歐 浪漫主義 혹은 메카당스의 이론을 어느 정도 잘 소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그가 「中間的인 倫理」란 표현으로 廢墟・白潮의 精神史的 的의를 요약한 것은 文學現象의 심층분석을 잘 시도해 본 卓見이라 하겠다. 사실 廢墟나 白潮에 대한 접근방법은 白鐵에게서 어느 정도 망라되어 있는 듯한 생각을 갖게 한다. 다만 작품분석에 있어서 印象批評을 극복하지 못한 흔적을 남겨 준다.

60년대 후반에 오면서부터 이 방면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냉정과 분석적인 태도를 회복한 것 같다. 철저한 작품분석에서 시작한다는 태도(申東旭), 비교문학적 검토의 확충방안(金澤東), 解釋에 치중하는 文學史家로서의 추

구 방법(金允植) 등이 그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研究史를 개관하여 볼 때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된다. 몇가지 그 과제를 지적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

- ① 廢墟와 白潮의 連結보다는 도식적인 분리를 꾀하는 점.
- ② 외국문학의 경험에만 주목하여 이들 동인지들 외국문학의 追隨主義로 몰아가려는 점.
- ③ 詩作品만 중시하여 그 작품의 외면적이면서 偶發的인 공통점을 찾아 확대 해석 하려는 점.
- ④ 精神史的 側面的 解釋이 아직도 부족한 점.
- ⑤ 작품의 構造에 대한 分析이 철저하지 못한데다 각 장르사이의 連結性이 거의 시도되지 않은 점.

대략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어찌 보면 해방이전의 한국 근대문학의 연구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는 방향에서 本稿를 토대로 한 본격적이며 제2차적인 작업을 꾀하여 보고자 한다.

### 主要參考文獻

#### (國內書)

- 金容稷：白潮考察，「檀國大 國文學論集」，1968.  
 ——：現代韓國의 浪漫主義에 관한 研究，「서울大 論文集」，1968.  
 金允植：「韓國現代詩論批判」，一志社，1975.  
 金澤東：韓國浪漫主義의 成立，「西江」1호，1970.  
 朴英熙：現代韓國文學史，「思想界」63호，1958. 10.  
 白 鐵：「朝鮮新文學思潮史」，白楊堂，1947.  
 申東旭：白潮派와 浪漫主義，「月刊文學」，1974. 10.  
 曠尙燮：樽樹下에서，「廢墟」2호  
 李光洙：朝鮮文士와 修養，「創造」8호

——：文學講話，「朝鮮文壇」3호

鄭琦鎬：3·1운동과 近代文學，「仁荷大 人文科學論文集」，1975.

趙演鉉：「韓國現代文學史概觀」，正音社，1964.

朱權翰：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朝鮮文壇」3호.

(外 書)

Hauser Arnold: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 Verlag C.H. Beck München, 1969

Schmitt Carl: *Politische Romantik* (1919) (裴成東譯，三省出版社，1977)

Lucas F.L.: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tic Ideal*, Cambridge, 1954

Wellek René: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1973